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11월 9일)

성전을 정화하시다

(요한 2,13-22)



성전 정화

야코포 바사노(Jacopo Bassano, 1510-1592)는 16세기 베네치아 화가이다. 그는 빛과 어둠의 강한 대비를 통한 극적인 효과를 지닌 생기에 찬 움직임으로 화풍을 발전시켰다. 그가 1580년경에 그린 <성전 정화>는 16세기 가톨릭교회의 시대정신을 말해주고, 마태오복음 21장 12-17절과 요한복음 2장 13-25절이 그 배경이다. 이 작품은 교회의 타락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생생하게 표현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 아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며 무서운 표정으로 채찍을 휘두르는 분이다.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지금도 교회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 이들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도 분노의 채찍을 휘두르시어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시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실 것이다.

야코포 바사노 | 1580년경, 캔버스에 유채, 160.5x267.5cm, 국립미술관, 영국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67번 “성전 오른편에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이 머무르는 성전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3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14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엮어 버리셨다. 16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17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18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19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20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21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2 예수님께서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일미사에 참여하면서 봉헌금을 형식적으로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나를 주님이 머무르시는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양, 소, 비둘기, 그리고 환전상은 먼 지역에서 파스가 축제를 지내러 온 유다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들을 얹으신 것일까요? ‘성전 앞에서 구할 수 있는 동물이나 돈으로 과연 하느님께 대한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 ‘양이나 소, 비둘기가 없어서 예물을 제대로 바치지 못하면 하느님과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십일조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들이 하느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성전의 모습과 제도를 바로잡으시어 성전과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셨듯이,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도 하느님을 모시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라테라노 대성당은 초기 그리스도교 박해에서 해방되어 신앙의 자유를 얻은 시점에 봉헌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순교자들의 용기로 이루어진 성당입니다. 성당이 없었던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 거처하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성당의 어머니인 라테라노 대성당은 하느님의 성전인 많은 그리스도인이 모이고 하나 될 수 있는 영적인 고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테라노 대성당 봉헌 축일에 우리는 소공동체라는 하느님이 머무시는 자리에서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본받아 일치를 이루며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요한 2장 21절]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말씀나누기 이 시간은 원하는 소공동체에서만 진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회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 **도움이 필요한 이들** ▶ 11월 16일, 가난한 이들의 회년 일정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우리 공동체 속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 고민해보기 (예: 독거노인 미용 봉사, 청소년 도서 구입 지원 등)

내 삶 속에서

- ① 내 주위 물질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이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묵상하기
- ② 묵상 후,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내 능력 안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69번 “지극히 거룩한 성전”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